

본 받는 자 고전 10:23-11:1

우리에게 언약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언약이 있어야 한다. 언약만 살아 있으면 피조물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안된다.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다. 이게 언약 정신이다. 창세기 15장 이야기 잘 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별들을 보여 주며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 더 해주셨다. 이 땅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잘 안 믿어졌을 것이다.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서도 10여년이 지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땅까지 주겠다니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종류의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뭘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갰다. 벌려놓고 기다리라는 것이다. 그 사이로 쌍방이 지나가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되도 상관없다는 그런 의미이다. 보통 사람들 사이의 약속일 때에는 자기도 지나가고 그 사람도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갔다. 이것은 나와 나 사이의 쌍방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일방 약속이라는 것이다. 내가 전부 다 할테니, 너는 할 것 없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 짐승이 쪼개지는 이 생명으로 이룰테니까 알고 있으라는 것이다. 너가 알고 있으면 돼, 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너가 죽을 일도 없다. 내가 죽으니깐. 이것이 약속의 피의 정신이다. 믿지 않으면 언약이 된다. 발견이 되면 들어왔다는 뜻이다. 이것이 안되셨으면 아직 저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도 그것은 진리이다. 여전히 사실이다. 그런데 아직 내것은 아닌 것이다. 여기와 나 사이에 어디쯤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때로는 들어온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 사람의 인생 역사는 그 때부터 하나님이 새로 쓰신다. 이것이 언약 정신이고 원리이다.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게 다 나온다. 이 한 개가 확인되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제목 응답이 다 나온다. 이것이 언약 정신이고 언약 방법이다. 진짜 알아야 한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와 땅 끝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언약을 잡고 살아야 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언약 안에 약속된 모든 것이 내 인생중에 나타나서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런 소리 나온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쉽지 않다. 이유가 뭐가? 언약이 아니라서 그렇다. 뭔가 다르게 아니면 언약 옆에 있지 언약 안에 안 들어왔다. 사실 인생의 답은 이것 하나 뿐이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릴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을 한 개 줬는데, 하나님의 답은 완전하고 다른 것 필요 없다. 영원하다. 안 바뀐다.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되면 인생이 저주에서 나온다. 나오기만 하는게 아니라 정복하게 된다. 역사하는 사단의 머리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절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사단이 못 이긴다. 나의 무엇 때문에 사단이 못 이기는게 아니다. 나는 부족해도 괜찮다. 나는 죄 지어도 괜찮다. 사단이 절대 못 이긴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죄를 즐겨도 사단이 못 이긴다. 일방적 약속이다 내가 너를 내 피로 구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손 대지도 못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알아야 한다. 두려워 한다. 잘 안된다. 그래서 계속 고백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24기도로 가는 것이다. 3집중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777이다. 하나님은 내가 했다는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일어나고 매일 새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일어나고 뒤엎어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24시간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수 있다. 하나님 약속이다. 생명으로 피로 약속했다.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내가 뭐를 해서 얻으려고 하니가 부작용이 나온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힘 내기 바란다. 이 사실은 절대 바뀌지도 않는다. 이제는 우리에게 운명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전쟁하면 무조건 승리하고 지는 법이 없다. 지는 이유는 한 개다. 이 언약으로 전쟁을 안하기 때문이다. 무슨 내 힘이나 생각으로 전쟁을 하려니까 지는 것이다. 내가 언약잡고 가면 매일 하늘

에서 먹을것이 내려온다, 그것이 만나이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 없다. 가나안 땅 갈 이유 없으면 애굽에 있으면 먹을거 거기서 나온다. 군데군데 오아시스 있는데도 데려가서 물 먹게 하였다. 안 그러면 3일만에 다 죽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40년동안 광야에 있게 하겠다고 했을때에도 물을 주셨다. 왜 그랬나?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때도 만나 내려왔다. 그것이 언약 정신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역수로 죄 짓는다. 전도 하나도 안한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안 죽인다. 하나님의 뜻이다. 언약 정신.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하였다. 이미 와 있다. 딱 언약 잡고 다시 누리기 바란다.

1. 본 받는 자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가 되라 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때에는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심하다고 생각했다.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너는 내게 배우라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깨달아 가면서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해했다. 복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육신적이다. 그래서 육신적인 눈으로 사도 바울을 볼 때 니가 하나님이나고 할 수도 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같으면 그것이 아니라 단계가 온다.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만 하다. 육신적 차이, 생각 차이가 아니다. 영적 차이가 있고 역사의 차이, 생각, 그림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받기 원하는 내용을 몇가지 이야기 하였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 사이에 교회에서 사회에서 덕을 세워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할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신은 모든 것을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다. 한칸 높은 사람이다. 아무리 모든 것 다 할수 있다 해도 나는 아무것이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24절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였다. 우리가 어쩌다 한번씩 그럴수 있다. 그런데 항상 할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까? 그러면서 시장에서 산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조금 고린도 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였다.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것이다.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판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였다. 우상숭배에 드러졌던 고기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시장에 판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제사 음식 안 먹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말하면 먹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 땅과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상에게 드러졌던지 말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다.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 다음 27-28절에 불신자 중에 음식을 대접하면 그냥 먹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재물이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서 먹는 것에 대해서 걸릴 필요가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먹는 것이다. 그게 더 당당하다. 정복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나서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람이다. 절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정도 승리하고 정복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24의 사람이다. 능히 가능하다.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이건 입에서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모두를 수용하고 넘어서라는 말이다. 바울은 가능했을 것이다. 메시지에서 많이 듣는 단어다.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수용을 해라. 이해하고 넘어서고 초월을 해라. 자신의 언약에 오직을 하고 그것을 통해 세계 복음화 하는 25의 사람은 가능하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뒤

를 가지려고 하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다 줘버리는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게 언약이고 가나안 땅 가는 것이고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 받게 하라고 하였다.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이고 이유였다. 모든 것을 이것을 위하여 다 던졌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계속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행위만 생각해서 놀렸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영적 눈을 뜨고 나서 이것도 영적인 일이라는 답이 나왔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누림과 영적인 상태의 변화는 이것을 정복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 보면 많이 바뀌었다. 옛날하고 내 주위와 내 생각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 사도 바울이 입에 발린 말로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 정말 양심적으로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능히 말할 정도는 되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우리도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육신의 행위가 아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타난 결과이다. 이런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은 이런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적인 언약이다. 약속의 피가 있는데, 그것이 이런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느냐? 이 영적인 비밀이 이해되면 실질적인 연결이 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된다. 길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 말고는 없다. 그래서 이 언약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놀라운 치유와 함께 그때 당연히 오는 것이 사명이다. 이 가나안 땅 가는 것, 세계 복음화, 237, 치유, 서밋이 진심이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은 그냥 이런 삶을 살았다던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복하는 삶이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정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를 정복했다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을 꺾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안되면 사도 바울처럼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육신적 삶의 모습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능히 본받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바울같은 인생 되기 바란다. 그냥 주기만 하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주시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는 것이다.

2. 언약 하나로

사도 바울은 언약 하나로 이렇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 바울은 인간중에 표본과 같은 사람이다. 교회사 뿐 아니라 세계사에도 이만한 역사를 준 사람은 없다. 그에게 일어난 열매를 보면 누구든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참된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성경적 전도의 창시자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다른 말을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는 기독교 문화를 일으킨 사람이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그랬다. 그러나 거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되어 졌다. 당시에 헬라 문화와 유대문화 같은 메이저 문화가 한쪽 옆으로 밀려져나갔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한 전도 때문이었다. 그의 전도가 시대를 뒤집었다고 하였다. 로마가 손들었다면 말 다한 것이다. 미국이 우리 전도 운도에 손을 들 날이 올 줄 믿는다. 미국도 로마처럼 될 것이다. 그는 전도에 있어서 제자가 무엇 인지를 보여준 첫 번째 제자였다. 그 전에는 아무도 이런 전도를 행한 사람이 없었다.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전도가 일어난 적이 없다. 전도의 형태를 보면 무디도 아니고 웨슬레도 아니다. 제자 중심의 전도를 시행한다는 단체가 몇 개 있다. 그런데 그들의 제자 훈련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과는 180도 다르다. 그 사람들은 전부 육신적 행위에 집중되어 있다. 책이 그렇다. 한국에서 평신도 제자훈련을 집중한 교회가 있다. 책 보면 전부 육신적이다. 못 해낸다.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힘이 없어서 못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행동, 규정 몇 개를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도 이것도 못하고 지금은 없어졌다.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도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다. 사실은 독보적인 사람이다. 그는 여러 분야에서 역사를 새로 쓴 사람이다. 자기 분야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이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다. 내 분야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슬퍼한다. 우리는 언약으로 하는 것이다. 언약으로 내 전문분야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미국에도 남미에

도 새로운 역사 쓰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도 미국과 남미의 흐름을 바꾸고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 우리가 잡은 언약을 항상 확인하는 것이 기도이다. 과연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수 있을까? 왜일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할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앞으로 세상에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작품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일을 할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와 비교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바로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가 알고 있는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 준 복음과 차이는 수준 떨어지는 복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 선교,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언약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도 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미국, 다민족, 렘넌트, 그리고 237, 치유, 서밋 똑같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힘있어서 이것을 했는가? 언약이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하면 어떻게 하는가? 불신앙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들어오기 바란다. 이 흐름을 타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 개인적으로 깊이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맞다고 생각되면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진 바울이 한 것은 한 개다. 그것이 전도이다. 들어오면 이 축복을 받는다.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만 전했다. 이 복음운동을 계속할 제자를 세웠다. 바울은 평생 이것을 한 것 뿐이다.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 답이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결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저런 불신앙 소리 듣지 말아라. 불신앙소리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 그게 체질이다. 거기에는 반발을 해야 한다. 틀렸다고 해야 한다.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의 문화를 바꾸겠는가? 노아가 어떻게 동물들을 방주 안에 넣겠는가? 노아가 어떻게 새를 잡아서 넣겠는가? 바울이 문슨 힘으로 문화를 바꾸겠는가? 무슨 힘으로 헬라 문화를 한 쪽으로 밀쳐냈겠는가? 한 동네의 문화를 바꾸는것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수 없다. 사상, 전통, 그런것을 어떻게 바꾸나?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이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 외에는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생각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 그렇다면 우리도 할수 있다. 노력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할수 있다. 요셉이 역사를 새로 쓴 것은 언약 때문이다.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모세가 주위 나라들에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들은 전부 간담이 녹았다고 하였다. 겁도 없이 달려드는 것들은 다 죽었다. 모든 나라에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왜냐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가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연한 것이 일어난 것이다. 여호수아가 시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를 중천에 멈춰주셨다. 히스기야에게 병고쳐주셨다 약속하셨다. 15년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증거를 위해 지구를 거꾸로 돌려주셨다. 잘 생각해 보면 소름 끼치는 일이다. 히스기야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지구를 거꾸로 돌려야 할만큼 중요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언약 가진 자의 권세이다. 히스기야의 피의 언약 때문에 지구를 거꾸로 돌린 것이다. 지구를 돌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셨다. 전부 다 당신의 언약을 위하여, 언약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잡고 있는 언약이 보좌이다. 우주를 넘어선 그림이다. 내 앞만 보고 있으니까. 내 사는 동네만 보고 있는가? 교회만 보는가? 눈을 떠야 한다. 우주를 보고 보좌를 봐야 한다. 그래서 남미 5천 종족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확인할 것은 하나 뿐이다. 우리도 이런 언약이 있는가? 이런 그리스도가 있고, 세계복음화가 있는가? 내게는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 시대의 가나안이 있는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근본 내용이다. 그의 언약, 그의 소원, 그의 방향, 그의 이유.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 미국의 역사도 새로 쓰고 남미의 흐름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100팀 100지교회도 되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인생 되기를 바란다.